

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진도에서 만난 자란이라는 행운

어릴 적 우리 집 베란다에는 식물 화분이 많았다. 베고니아, 소철류, 필로덴드론...

그 말을 들은 부모님은 그저 웃어 넘기셨지만, 나는 내심 좋은 일이 생기길 기대했던 것 같다.

커서야 알게 되었다. 인간은 희귀하고 드물게 존재하는 자연물을 신성시해왔다는 것을 말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난과 식물은 다른 식물에게서 찾을 수 없는 단순하면서도 동양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데다.

유럽에서는 이들이 '중국땅나'라는 이름으로 조경 식물로서 널리 심어지고, 다양한 품종으로 육성되어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식물 문화가 중장년층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되고 집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난과 식물을 재배하는 연령대는 여전히 한정적으로 보인다.

물론 대다수의 난과 식물이 가느다란 잎만으로 대부분의 삶을 나는 것은 맞지만 모든 난이 그런 것은 아니다.

한자 '자주빛 자'와 '난초 란'의 합성어인 자란은 우리가 난과 식물에 갖고있는 편견을 허물어 준다.

형형색색의 잎과 꽃 그리고 긴 꽃줄기의 자란을 보면 외국 어느 열대 지역 원산의 식물로 착각하기 쉽다.

유럽에서는 이들이 '중국땅나'라는 이름으로 조경 식물로서 널리 심어지고, 다양한 품종으로 육성되어

었다. 십여 년 전 진도에서 식물 조사를 하고 숙소로 가던 중 웬지 아쉬운 마음에 충동적으로 바닷가 앞 숲으로 발길을 돌렸다.

숲의 개체는 정원에서 보던 모습보다 꽃대가 길었고, 꽃색은 좀 더 옅었다. 자란 관련 논문을 찾아보니 줄기에 달린 꽃은 많으면 12개까지 핀다고 하는데, 숲에서도 일곱 송이 이상 달린 것은 볼 수 없었다.

그날 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큰 길을 따라 숙소로 바로 갔다면, 반대편 바닷가로 향했다면 자란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누군가는 자란을 가리켜 너무 크고 잘 자라며, 희귀하지 않아 매력 없다고도 한다. 그러나 나에게 자란은 꽃을 잘 피우고, 큰 꽃과 잎이 있고, 희귀하지 않아서 찾을 수 있었던 나만의 행운의 식물이다.

<식물 세밀화가>

의료칼럼

노년의 저작(咀嚼) 기능 관리



유지원 조선대치과병원 구강내과 교수

현재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고령 사회이며, 2026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강 수명이란 신체적·정신적으로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하는 기간으로, 2020년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수명은 73.1세이다.

최근 건강한 나이 들에 관한 화두로 출간된 서적, 연

구 등을 살펴보면, 건강한 식사와 적절한 신체 활동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인 틀니·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치아 상실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인 틀니·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치아 상실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으나 최근에는 노년층에서도 유발율이 꾸준히 늘고 추세이다.

노년의 턱관절 질환은 진단과 치료를 하는데 있어 성인의 그것과 여러 차이점이 있다. 첫째, 노인의 턱관절 질환은 관절면의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고

금남로를 기억하는 '금남로 문고'



성진기 전남대 명예교수

"그냥 길을 걷는다. 무작정. 이른 아침의 慢步(만보). 띄엄띄엄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거리의 화단...

광주 사람 권일승(權逸勝) 시인의 에세이 '한해지(旱害地)에서 온 편지'의 한 대목이다. 금남로에 꽃길

광주에서 옥삼하고도 토를 달 만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걷고 돌아다니던 거리 이름을 대라면 금남로가 단연 일 번째다.

의 자유로운 취사선택에 달려있다. 불쾌한 추억은 지우고, 즐거운 추억은 불러낼 수 있다.

그러나 기억은 마냥 자유로울 수 없다. 호오(好惡)에 따라 지우고 불러오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 또래들의 금남로 기억은 우울한 것이 많다. 대학 초년에 4·19를 맞아 금남로에 물러와 구호를 외쳤다.

언제부터가 광주 사람들이 광주의 금남로 이름을 불러 주지 않는 듯하다. 슬한 아픈 기억을 품고도 침묵하는 금남로의 외로움을 보듬는 기미가 미미하다.

"뜨거운 불꽃 같은 사랑의 언어, 나는 나의 시가 그러한 것으로 되길 원해 왔다. 사랑의 상실, 대상에 대한 무관

심, 그 권태야말로 모든 우리들의 무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 광주의 금남로에 대해 권태로운 걸까.

이런 이유로 광주 역사의 현장인 금남로에, 금남로를 진지하게 기억하기 위한 공간으로 '금남로 문고(文庫)'를 제안해 본다.

금남로에 문고를 설치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님을 모를 사람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광주 사람들의 의식과 의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광주 금남로에 시민의 자랑거리 '금남로 문고' 하나 만드는 게 몹시 어려울까? 그렇다면라도 금남로의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광주시민의 자존감을 제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광주 금남로에 시민의 자랑거리 '금남로 문고' 하나 만드는 게 몹시 어려울까? 그렇다면라도 금남로의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광주시민의 자존감을 제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社說

'아파트 도시' 광주 부실시공 상시 점점 나셔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로 '순살 아파트' 논란이 확산되면서 아파트 거주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광주시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 검단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에 이어 LH가 발주한 아파트 91개 단지 중 '무량판(無樑板) 구조의 15곳에서 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되자 민간 아파트도 점검 대상

광주시 조사 결과 LH가 무량판 구조 채택을 본격화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에서 준공 허가를 받은 민간 아파트는 140개소 5만 9799세대였다.

'위안부 기림의 날' 제정 의미 벌써 잊었나

광복절 하루 전인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기림의 날'이다.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가 2017년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때부터 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곳곳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광주시도 2017년부터 매년 8월 14일 기림의 날을 맞아 조촐하게나마 기념행사를 열어 왔다.

광주시는 행사 중단 이유로 2019년 광역예남 할머니가 별세함에 따라 지역에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가 없고, 관련 시민단체 중 행사를 주관할 곳이 나타나지 않아 개최 당위성이 퇴색했다고 밝히고 있다.

크'가 유일하게 무량판 구조였지만, 현재 철거 중이어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기간 LH 발주 아파트도 10개소 3464세대가 준공됐는데 모두 무량판 구조가 아닌 보 방식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도시'인 광주에서는 2021년 학동 철거 건물에 이어 지난해 화정 아이파크 붕괴 등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두 차례나 대형 참사가 잇따랐다.

無等鼓

기림행사에 관 주도거나 아닌 민간 중심이 이뤄졌으면 하는 광주시의 생각을 닦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면 더욱 신중하게 의사를 묻고 행사가 끊기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서였다.

광주시는 위안부 기림의 날 제정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

Advertisement for 'The Kwangju Ilbo' featuring '無等鼓' and '부실 공사의 배후'.

Table with publication details for 'The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